

언론박물관·문화채널 등 논의...문화전당 연계 초점

전일빌딩 활용 원점 재검토

광주시는 전일빌딩 활용방안을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지만, 문공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문제가 난관이지만, '광주의 상징'인 전일빌딩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논의된 활용방안은=시는 매입 당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맞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문공부가 주차장 건

도시공사 年 2억여원 손실

광주시에 재매입 촉구

수백억 리모델링 비용 과제

정부 지원 없이 백악이 무효

설을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안됐다. 전일빌딩이 한국 현대사를 기록한 광주지역 대표 언론인 광주일보와 전일방송 등이 있던 호남 언론의 태자지였던 만큼 언론박물관 기능을 담은 가칭 미디어교육관 설립 의견도 제시됐다. 전일빌딩이 호남언론

의 1번지이고, 호남 언론의 흔이 깃든 역사적 상징성이 큰 장소인 만큼 언론박물관 기능을 갖춘 가칭 미디어문화센터 등 언론 관련시설물이 들어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국내외 작가들이 머물며 작업을 할 수 있는 문화창작지원센터 설립 방안과 문학관 설립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먹밥으로 대변되는 5월 공동체 정신을 살려 시민공동체 센터나 아시아 젊은이들이 찾아와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모두 백지화되는 등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사회 분란만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전일빌딩 소유주인 도시공사와 임차인 강도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도시공사는 임대차 계약기간(2011년 8월12일~2013년 6월30일)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건물명도를 통보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2011년 도시공사와 맺은 임대계약으로부터 5년간 임차권을 갱신할 수 있다며 2016년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

용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도시공사는 전일빌딩의 정확한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8월3일까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외관 상태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콘크리트 구조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또한, 전체적인 안전성 또한 유지돼 적절한 보수·보강이 수반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활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는 현재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37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용역이 완료된 만큼 구조안전보강 사업 등 비용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일빌딩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가능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체인 문공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문공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공부에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보안시설 및 추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문공부도 전당 개관 이후 관람객들의 요구에 따라 부족한 시설 등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원길기자 cki@

새정치 "국정화 저지·민생 병행 투쟁"

여야 국회 정상화...노동개혁·예산심의 대처 현안 첨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시작한 국회 농성을 지난 6일 중단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6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에 의해 9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오늘(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문화계에 참석하면서 국회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법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주도권 확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어렵사리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면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12월2일까지 3주 남

지 동안 정치권은 또 한 번 소용돌이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재가동되는 국회의 의사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9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정상 가동기로 합의했을 뿐 오는 10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과 전·월세 관련법 통과가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양당 유의동, 이인주 원내대표인이 회동 직후 전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지난 한 주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만 참석한 채 파행 운영했던 예산결산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공방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단독으로 심사한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역사교과서를 돌

리싼 대야 공세를 재점화할 계획이어서 예결위 회의장에서는 다시 한번 역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2일째부터 예산결산 소위를 열어 갑예·중예 작업에 돌입하면 올해 예산 전정정은 정점으로 치닫게 된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표인은 "국정교과서 문제와 국민의 삶에 동시에 보살피는 긴 투쟁을 할 것"이라면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며, 가물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이뤄진 보(泐)의 물을 지천으로 연결하려는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쟁점 예산이다.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이들 예산이 '대통령 관심예산'으로 과편성됐으며 삭감하려는 새정치연합이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가운데)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배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국역사연구회 '대안 교과서' 개발 착수

국정 교과서 대응... '성희롱 의혹' 최몽룡 교수 대표 집필진 사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대안 교과서'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는 "국정 교과서에 대응할 '대안 한국사 도서' 개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일을 할 사람도 어느 정도 정한 단계"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회 정몽룡 회장(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은 "우리가 매우 많은 인력을 투입해

서 집필·감수·편찬 작업을 할 예정"이라면서 "도서 형식이나 발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88년 출범한 연구회는 민중사학의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이 설립한 '망원한국사연구회'와 '한국근대사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 진보적 성향을 띤다.

현재는 고대사·중세1·중세2·근대사·현대사분과와 생태환경사를 연구하는 범분

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회원은 국내 역사 관련 학회 중 가장 많은 700여명이다.

집필진은 연구회 소속 교수나 역사 관련 연구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편집위원이나 임원 출신의 학자들은 검토에 일부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의 대표집필진으로 초빙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다. /연합뉴스

새정치, 국정화 금지 법안 주내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조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을 비롯,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화금지 관련 법안들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다양성,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인지 강조하고, 국정화 금지를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발표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쟁쟁화하고 싸

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과 조 위원장은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를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애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으며 "행정절차상 종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 고시에 대해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3회 하나투어 결혼박람회

2015. 11. 14(토) ~ 15(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하나허니문

클래식 ABW100_KE/OZ/LJ.5
푸켓 6일

파빌론 스파펜트하우스 (2+2)

총상품가 **1,800,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커플 70만원 할인/데일리 깜짝 선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요트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

클래식 AXW101_F
몰디브 6/7/8일

포시즌 쿠다후라 리조트

총상품가 **4,563,800원~**

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 (1인 \$25),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하나투어 단독 선셋 돌핀크루즈 1회 포함
리조트 크레딧 \$300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별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항 시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행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장애인/불편점수 T: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민 보증보험 22억 (1인만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2 ● 여행 자제 3 ● 철수 권고 4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